**국제 연합과 자문 관계인 비정부기구 제26차 총회 (2018. 3.1-3, 제네바) 결의문**

**우리의 기구인 국제연합의 재정**

2018년3월1일~ 3일 제네바에서 국제연합과 자문 관계에 있는 비정부기구 ’CoNGO’ 제 26차 총회가 개최되어,

* ’국제연합 헌장’의 원칙과 국제연합이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확신하고,
* 2017년 12월 24일 채택된 2018-2019년 예산에서 국제연합 운영에 할당된 자원의 감소를 주목하며,
* 국제연합 정상 예산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며,
* 이 위험한 전개를 되돌리고자 하는 조치가 회원국과 전세계 시민 사회의 입장에서는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숙고하여,
* 국제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국제연합과 각국 정부들과 전세계 시민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임을 재차 강조하면서,
* 국제연합 체제가 전 세계 시민 단체의 기여와 역량 및 책임감을 동원하고 건설적으로 활용하여 여러 목표 달성을 촉진, 관리, 조정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할 중추적 역할을 강조한다,
* 유일한 전 세계적인 기구인 국제연합 체제만이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많은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재정적 및 인적 자원을 확보할 필요성을 역설한다,
* 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국제연합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축된 상황을 심히 우려한다,
* 국제연합 일반 예산 자원 삭감이 이 세계적 기구의 효과적인 운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,
* 대중 홍보 및 국제연합 업무에서의 비정부기구의 참여와 자문에 대한 자원 감소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 또한 역설한다,
* 다각적인 활동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을 삭감하고 감액하는 최근의 추세를 중단하고, 다음 예산 기간에 충분히 늘어날 일반 예산을 수용하겠다고 공약할 것을 여러 정부에 호소한다,
* 다자주의 철회가 종종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겪었던 일방주의의 문을 여는 자해임을 인식하여, 국제연합 체제의 기구 및 기관을 지원하고 전적으로 참여할 것을 여러 정부에 호소한다,
* 성명서와 공개 회의를 통해 국제연합의 재정 위기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낸 CoNGO위원회, 기구 위원회 및 회원 기구의 솔선에 찬사를 보낸다,
* 2000년 5월에 개최된 비정부기구 새천년 포럼에서 채택되고 합의된 입장, 즉 국제연합 일반 예산을 두 배로 늘릴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,
* CoNGO가 전 세계 시민 사회 공동체와 연계하여 여러 정부와 모든 관련 주체들에게 국제연합 체제에 필요한 정당한 자원을 제공하도록 관여하고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CoNGO의 임원진에 부여한다.